**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기원전 약 1,000년)에서는 후에 ‘가메가오카식 토기’라고 불리게 되는 조몬 시대(기원전 13,000년~기원전 400년) 후반에 일본 북부에서 만들어진 토기의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도의 제작 기술과 훌륭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한 이 공예품은 곧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가메가오카식 토기는 도쿄국립박물관, 대영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각지의 대표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술과 정신성

이 유적을 발굴한 결과,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물품을 함께 묻은 토광묘(타원형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한 무덤)가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덤 구덩이와 유적 곳곳에서는 잘 갈고 닦여진 토기, 광택이 있는 비취 구슬, 옻기, 식물 섬유로 짠 물건, 정교한 머리장식을 착용하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속이 빈 중공 토우 등 다양한 매장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식품이 공물로써 함께 묻혔다는 사실은 조몬 시대 말기의 사회가 발달된 정신 세계를 보유하고 복잡한 형식의 제사를 지낸 진화한 사회였음을 말해줍니다.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지 유적

조몬 시대 말기에 가까운 기원전 1,500년~기원전 400년경이 되면 무덤지는 마을 바깥에 만들어지고 여러 마을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변모합니다. 또한 의식을 치르는 장소와도 구분되도록 분리했습니다. 이전의 마을(기원전 3,000년~기원전 2,000년)과 비교해 마을의 규모가 작아지고 분산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은 조몬 시대 말기의 독립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는 무덤지입니다.

인접한 관련 유적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에는 몇몇 안내 표지판과 정교한 머리장식을 착용하고 커다란 눈이 특징인 토우상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고야노 패총[링크]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쓰가루시 조몬주거 전시자료관 카루코[링크]와 쓰가루시 기즈쿠리 가메가오카 고고자료실[링크]에는 가메가오카 석기시대 유적과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조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소 멀기는 하지만, 같은 아오모리현 내에 자리한 하치노헤시의 하치노헤시 매장문화재센터 고레카와 조몬관에는 고레카와 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가메가오카식 토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